

주일 예배 10시 50분

2018년 2월 4일(첫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목상

예배로의 부름		인도:김성진 집사
찬양		
*기도	사도신경	다 함께
*찬송	피난처 있으니(70장)	다 함께
*교독문	67번	다 함께
*찬송	여러 해 동안 주 떠나(278장)	다 함께
기도		하재혁 집사
찬송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432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그리스도인 3:죽어야 할 대상, 살아야 할 대상(로마서 6장1-14절)	
*찬송	날 대속하신 예수께(321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금주 읽을 성경: 시편 115-119편 48절(119편은 매일 16절씩), 사무엘 상

-우리의 기도:

1.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그의 사람

주님! 골리앗을 쓰러뜨리매
온 이스라엘의 붓물 터지듯 울려오던 그 음성
모두가 다 다윗의 사람 아니었고요.

당신의 말씀은
좁은 그 길에 함께 서서
살고 죽음을 함께 하고자 하던
그 400 명, 그 600 명이
다윗의 사람임을 당신은 기록하시었습니다.

주님! 흘러가는 강물 많고 많지만
당신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 목마르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위대한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 아니 되어도
말없이 잠잠히 그러나 강하게
당신만을 찾고 추구하여 의지하고 따르며
당신만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당신 사람만 되게 하옵소서.
그 어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밤의 기도

신경자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손이 아닌
아무 것도 쥐지 않은 빈손으로
당신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당신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잘 살고 싶습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금새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스며들어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밤 시간도

주님을 가득 채우고
잠들게 하옵소서.

참된 마음

박성우(고3)

모진 풍파 같은 세상살이에
휩쓸려지기 쉬운 나의 여건.
친구란 파도에 한번 휩쓸리고
공부란 파도에 다시 휩쓸리고
만신창이와 같아진 내 육신.

지금의 난,
한줌의 진토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 뿐...
문득,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예수님'이라는 한줄기 복음의 닷.

그것을 붙잡음으로
내 마음 가득히 채워지는
따스한 위로와 평안!

더 이상의 고뇌도 없고
더 이상의 시련도 없는
주님 모신 참된 마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2월 4일(5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ui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